

중등예비음악교사의 교육실습과정 실태 및 인식조사*

A Study on Current State and Perception of the Practicum Process among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s

홍혜원** · 신지혜***

Hyewon Hong  · Jihae Shi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소재의 중등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습과정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23년도에 교육실습을 경험한 전국 사범대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등예비음악교사 14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학교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의 개선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둘째, 교육실습의 내용과 지도교사들의 지도에서 ‘학교 업무나 교사 역할’에 대한 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교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실습기간은 ‘4주’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넷째, 음악수업 참관 횟수가 높을수록 실습생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음악수업 시연 횟수는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실습과정에서 교육실습기간과 실습학교 기자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실습 경험과 내용은 실습생들이 이상적인 실습 환경, 내용, 그리고 실습에서의 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실습기간과 예비음악교사의 음악수업 참관 및 시연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와 교육실습 전, 후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내적 측면의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중등예비음악교사, 교육실습과정, 음악교육, 교사교육, 예비음악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s of practicum programs among 140 prospective secondary music teachers in South Korea who completed their practicum in 2023. The findings reveal the need for improvements in orientation programs conducted at practicum schools and in guidance on "school responsibilities and teacher roles" provided by supervising teachers. A four-week practicum period was considered ideal by most participants. Increased observation of music classes was linked to higher satisfaction, while the frequency of teaching demonstrations had no significant impact. The results also indicate the need for improvements in practicum duration and the availability of facilities at practicum schools. Additionally, practicum experiences influenced participants' perceptions of ideal practicum environments, content, an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guidance.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evising practicum programs to address these issues. Further in-depth research is recommended to explore practicum duration, observation, teaching demonstrations, and factors influencing prospective teachers' perceptions before and after the practicum.

Key words: pre-service music teacher for secondary education, teaching practicum, music education, teacher education, pre-service music teacher

* This study is a revised and expanded ver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First author, E-mail: 212MUE42@ewhain.net

Student Researcher(Master's Graduate),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c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hshin99@ewha.ac.kr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c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I. 서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비교사가 교사의 자질과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곳은 교원양성기관인데(Shin, 2016), 교원기관에서의 경험은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Stites, Rakes, Noggle & Shah, 2018).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은 교사가 좋은 교사의 자질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는 교과내용학지식, 교과교육학지식, 일반교육학지식, 교육상황지식을 배우게 되는데(Lee, 2013) 이 과정 중에서 교육상황지식을 배우는 교육실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Joo, 2011). 교육실습은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운 교과 내용과 이론을 현장에 직접 적용해보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법과 교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학생에 대한 이해를 기르며 실천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Seok, 2016). 이뿐만 아니라 교육실습을 통한 현장 경험과 현직교사와의 대화는 예비교사의 반성적 지식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Lee, 2019; Seo, 2005). 실제 많은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Eom & Eom, 2009; Park, 2018), 교직원과 적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혀내었다(Kim, 2012; Kwon, 2009; Ministry of Education, 2021; Na et al., 2012).

이러한 교육실습의 중요성 때문에 국외에서는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에서의 현장 및 교육실습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Jung, 2012).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교육실습 과정 안에서 관찰과 실습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예비교사들은 보통 한 학기 이상 현장에 나가서 교사로서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실례로 미국 켄터키주에서는 관찰 실습을 200시간 동안 진행하고, 교육실습을 최소 70일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3년의 관찰 실습, 16주의 교육실습을 지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예비교사들은 교원양성기관에 따라 최대 10주에 걸친 실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사 학위과정의 경우 2주간의 학교 경험, 5주간의 교수 보조, 5주 동안의 교육실습 1, 10주 동안의 교육실습 2에 참여해야 한다(Kim & Lee, 2008). 이처럼 국외에서는 교육실습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비교사들이 긴 시간 동안 관찰 실습과 교육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의 교육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실습학기제를 도입하여 학기 전 과정 동안 교육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며, 2028년도에 실습학기제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에 5개의 사범대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학기제가 시범운영 되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3년 2월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반 조성 추진 안내’에서 교육실습 기간을 4주에서 한 학기(15주~17주)로 확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사범대학 10개 대학에서 학교현장실습학기제가 운영되었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교육실습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실습을 실제 경험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습에 대한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악 과목은 다양한 매체인 피아노, 장구, 단소, 리코더 등을 사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실기 능력을 갖고 음악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는 현장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Jang, 2007; Yoon, 2018). 따라서 예비음악교사들이 교육실습을 통해 현장경험을 하는 것은 중요하며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음악교육실습 기간이 확대되는 시점에 예비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 현장실습의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는 과정은 음악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중등예비음악교사의 음악교육실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교육실습의 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Ko, 2021; Lim, 2023), 교육실습이 음악교수효능감 또는 교사자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Lim, 2023; Shin, 2015; Yoon, 2018), 교육실습이 교수내용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Joo, 2014; Jung, 2017) 등의 내용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음악교육실습의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음악교육실습 환경에 대한 선행논문으로 교육실습 환경에 대한 질적연구(Cho, 2019)가 있으나 2015~2018년도에 교육실습을 경험한 소수의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로 전체적인 실습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3년도에 음악교육실습을 경험한 중등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습과정 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예비음악교사를 위한 교육실습과정 실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둘째, 중등예비음악교사의 교육실습과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교육실습의 정의 및 이해

교육실습이란 교원양성기관의 학생들이 교사가 되기 위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한 뒤, 일정 기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교직을 체험하며 교사의 실무능력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이다(Kang, Shin & Seol, 2022; Kim, 2016). 이 기간에 예비교사들은 교양, 교직, 전공과목을 통해 배운 지식과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하면서 교사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된다(Kim, 2016; Kim & Lee, 2008). 또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다양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해 보면서 교직에 대한 적성이 잘 맞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Kwon, 2009; Shin, 2015).

교육실습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교원자격증 취득이다. 교원 자격 검정 기준 및 조건에 교육실습이 포함되므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Kang, 2013; Ko, 2021). 두 번째,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 동안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운 교육이론과 전공지식을 교육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다(Kim, 2005).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운 교수법과 이론을 교육현장에 적용해보는 것은 이론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능력과 실제적인 지식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Kim, 2016). 세 번째, 교육실습은 수업 외에 학급경영, 행정업무와 같은 실무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Kim, 2016).

교육실습의 과정은 사전준비, 참관단계, 실습단계, 사후지도로 나뉜다. 여기서 교육실습의 사전준비와 사후지도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지도하는 과정이므로 교육실습은 크게 참관단계와 실습단계로 구성된다(Jung, 2004; Kim & Lee, 2008; Kim, 2016; Na et al., 2012). 참관단계는 학교와 관련된 모든 영역과 교육 현장을 관찰하고 참여하며, 수업 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Ko, 2021; Park, 2018). 이때 학교의 주변 환경, 학생들의 생활 모습, 교사들의 상황 등을 관찰하면서 이해할 때 주관적인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Kim, 2016). 이 단계를 예비음악교사에 적용하면 학교 음악실에 구비되어 있는 악기의 현 상황과 수업 실습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파악하고, 음악교사의 수업 준비과정과 학생들이 어떻게 음악수업에 참여하고, 준비하는지 등을 참관하며 배울 수 있다.

실습단계는 관찰단계와 참가단계에서 관찰하고 배운 내용을 직접 실습해보는 단계이다. 교육실습 중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실습단계를 통해 교사의 업무를 직접 담당해보는 단계이다(Joo, 2011). 실습단계에서 주로 다루지는 내용은 수업, 학급경영, 생활지도, 실무 등이 있다(Joo, 2011). 수업실습에서는 관찰과 참가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도교사의 지도 안에서 수업계획안과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준비하여 직접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지도한다(Ko, 2021; Na et al., 2012; Park, 2018). 수업 외에 생활지도, 평가, 학급운영 및 업무 등에 대한 실습은 교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경험해보며 교사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Park, 2018).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23학년도 1학기에 교육실습을 경험한 전국 사범대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을 위해 예비음악교사가 주로 활동하는 네이버와 다음 카페에 설문지에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를 배포하였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예비음악교사를 찾아 설문지에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를 전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회수된 설문지 140부를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 처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의 재학 중인 학교는 전체 140명 중 사범대 78명(55.7%) 교육대 학원 62명(44.3%)이며, 나이는 만20세~25세가 80명(57.2%), 만26세~30세가 51명(36.4%), 만 31세 이상은 9명(6.4%)으로 만20세~25세가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24명(17.1%), 여자가 116명(82.9%)으로 여자가 월등히 높았다. 세부 전공 악기는 성악 17명(12.1%), 작 곡 6명(4.3%), 건반악기 68명(48.6%), 현악기 30명(21.4%), 관악기 14명(10.0%), 국악 2명 (1.4%), 기타 3명(2.2%)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student teachers

Type	Item	Number of Responses	%
Enrolled School	College of Education	78	55.7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62	44.3
Age	20-25 years	80	57.2
	26-30 years	51	36.4
	31 years and above	9	6.4
Gender	Male	24	17.1
	Femae	116	82.9
Specialization	Vocal Music	17	12.1
	Composition	6	4.3
	Keyboard Instruments	68	48.6
	String Instruments	30	21.4
	Wind Instruments	14	10.0
	Korean Traditional Music	2	1.4
	Others(Musicology)	3	2.2
Total		140	100

2. 연구 도구 개발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가정과 교육실습의 실태와 만족도를 연구한 박은숙(Park, 2000), 예비교사 교육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강향임 외(Kang, Shin & Seol, 2022), 간호학생의 실습교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한 이수연, 제미순(Lee & Je, 1998)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음악교육 관련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음악교육실습에 맞추어 문항 내용을 수정하여 총 17문항으로 제작되었다. 교육실습 실태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세부항목은 총 6개의 항목으로 ‘교육실습학교 오리엔테이션의 실태’, ‘교육실습학교 환경의 실태 및 인식’, ‘교육실습 내용의 실태’, ‘교육실습 지도의 실태 및 인식’, ‘교육실습 평가의 실태’, ‘교육실습 과정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인식’, ‘교육실습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뉜다.

‘교육실습학교 오리엔테이션의 실태’는 교육실습이 시작하기 전 현장실습학교에서 이뤄지는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실태를 다룬 문항이다. ‘교육실습학교 환경의 실태 및 인식’은 실습생 수와 실습기간에 관한 문항이며, ‘교육실습 내용의 실태’는 교육내용과 수업참관, 수업시연 횟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실습 지도의 실태 및 인식’은 교육실습 중 지도교사를 통해 지도받은 내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교육실습 평가의 실태’는 교육실습 중 이뤄진 평가방법에 대해 구성되었다. ‘교육실습과정의 개선점에 대한 인식’은 교육실습의 전반적인 개선점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실습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교육실습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교직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2> Detailed areas and items

Type	Item	Number of Items
General Information of Student Teachers	- Enrolled School - Age - Gender - Specialization	4
Survey on the Status and Perception of Teaching Practicum	- Status of Orientation at Practicum Schools - Status and Perception of the Practicum School Environment - Status of Practicum Content - Status and Perception of Practicum Guidance - Status of Practicum Assessment - Perception of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Practicum Process -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acticum Process	13
Total		17

설문지의 타당도를 위해 음악교육 전문가 1인, 현직 음악교사 2인 총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이후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22년도에 교육실습을 경험한 교육대학원생 4명과 비사범대 교직이수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만족도 1문항’, ‘음악수업 참관 횟수 만족도 1문항’, ‘음악수업 실습 횟수 만족도 1문항’,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조사 4문항’ 총 8문항에 대해서 신뢰도 검사를 한 결과 .8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구글 설문지로 제작한 온라인 설문지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140부의 설문지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29.0.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분석 방법으로 빈도분석을 통해 설문지의 모든 문항의 전체빈도(N)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평균 및 표준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응답이 가능한 문항은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교육실습학교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실태 분석

<Table 3>은 교육실습학교 준비과정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오리엔테이션 유무에 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교육실습이 시작되기 전 실습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고 응답한 수는 100명(71.4%),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수는 40명(28.6%)이다. 이를 통해 교육실습의 준비와 교육실습에 관한 교육 없이 교육실습을 경험하는 실습생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Orientation availability at practicum schools

Type	N	%
Orientation Provided	100	71.4
No Orientation Provided	40	28.6
Total	140	100

<Table 4>는 오리엔테이션을 참가한 100명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다중응답 빈도분석 실시 결과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교육실습 일과 및 일정’ 72명(24.0%)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교육실습생 복장 및 준수사항’ 67명(22.3%), ‘교육실습 평가항목에 대한 소개’ 46명(15.3%), ‘담당 학급에 대한 소개’ 41명(13.7%), ‘실습일지 관련 사항’ 38명(12.7%), ‘학교 내부 구조 소개’ 36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습학교에서 ‘교육실습 일과 및 일정’과 ‘실습생의 복장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담당 학급과 학교에 대한 소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Content of orientation at practicum schools

Type	N	%
Dress Code and Guidelines for Student Teachers	67	22.3
Introduction to Practicum Evaluation Criteria	46	15.3
Daily Schedule and Timetable of Practicum	72	24.0
Introduction to Assigned Class	41	13.7
Information on Practicum Journals	38	12.7
Introduction to the School's Internal Structure	36	12.0
Others	0	0.0
Total	300	100

2. 교육실습학교 환경에 대한 실태 및 인식 분석

다음 내용은 지도교사 1명당 배정받은 실습생의 수에 대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와 응답자가 경험한 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Table 5>와 같다. 지도교사 1명당 1명의 실습생이 배정받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3%(83명)로 가장 높았는데 실제로 응답자의 경험도 38.6%(52명)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인 이상적인 환경은 실습생 수 2명으로 25.7%(36명)로 나타났다. 실습생의 경험에서도 실습생 수 2명이 35.0%(49명)로 두 번째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많은 응답자가 지도교사 1명당 1명의 실습생이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실습생이 많을수록 배움의 기회와 지도 횟수가 적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실습 기간과 응답자가 경험한 실습 기간에 대한 결과는 <Table 6>이다.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실습 기간과 응답자가 실제 경험한 기간 모두 ‘4주’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각각 108명(77.1%), 127명(90.7%)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인 이상적인 실습 기간은 ‘6주 이상’으로 13명(9.3%)이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6주 이상’ 실습을 경험한 응답자는 1명(0.7%)이었다.

<Table 5> The actual number of student teachers assigned per supervising teacher and perception of this practice

Type (Number of Practicum Students)	Ideal Practicum Environment		Practicum Environment Experienced by the Respondent	
	n	%	n	%
1 person	84	59.3	54	38.6
2 persons	36	25.7	49	35.0
3 persons	4	2.9	12	8.6
4 persons	2	1.4	6	4.3
5 persons	2	1.4	4	2.9
6 persons or more	3	2.1	2	1.4
N/A	10	7.1	13	9.3
Total	140	100	140	100

<Table 6> The actual duration of the practicum and perception of this duration

Type	Ideal Practicum Environment		Practicum Environment Experienced by the Respondent	
	n	%	n	%
less than 4 weeks	3	2.1	6	4.3
4 weeks	108	77.1	127	90.7
5 weeks	6	4.3	0	0.0
6 weeks	6	4.3	1	0.7
more than 6 weeks	13	9.3	1	0.7
N/A	4	2.9	5	3.6
Total	140	100	140	100

3. 교육실습 내용에 대한 실태 분석

교육실습 내용 중 교사가 담당하는 학교업무 또는 교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유무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실습 중 학교업무 또는 교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7%로 127명이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9.3%로 13명으로 나타났다.

<Table 7> Availability of training on teacher duties or school tasks

Type	n	%
Training Provided on Teacher Duties or School Tasks	127	90.7
No Training Provided on Teacher Duties or School Tasks	13	9.3
Total	140	100

다음 내용은 학교업무 또는 교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127명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Table 8>과 같이 다중응답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응답은 ‘학급경영, 학습업무 등 담임교사의 업무’로 응답자 104명(27.4%)이 선택하였다. 뒤이어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업무’ 92명(24.3%), 학교 현황, 학교 행정업무에 관련된 업무 76명(20.1%), ‘학생진로지도와 관련된 업무’ 58명(15.3%), ‘교직 사명에 관한 교육’ 46명(12.9%)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급경영, 학습업무 등 담임교사의 업무에 관한 교육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진로지도 및 상담과 관련된 업무와 교직 사명에 대해서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 Content of training on school or teacher responsibilities

Type	n	%
Classroom Management and Teaching Responsibilities of Homeroom Teachers	104	27.4
Student Life Guidance-related Duties	92	24.3
Career Counseling-related Duties	58	15.3
School Overview and Administrative Duties	76	20.1
Training on the Mission of the Teaching Profession	49	12.9
Others	0	0
Total	379	100

<Table 9>는 실습생이 현직교사 또는 동료실습생의 음악수업을 참관한 횟수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참관 횟수는 ‘1~5회’가 57명으로 40.7%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6~10회’는 46명(32.9%), ‘10~15회’는 27명(19.4%), ‘16회 이상’은 8명(5.7%) ‘기타’ 2명(1.4%)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은 실습생이 연구수업을 포함한 음악수업을 시연한 횟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0>과 같이 시연 횟수는 ‘4~6회’가 51명(36.4%)으로 가장 많았다. ‘7~9회’가 31명(22.1%)으로 그 뒤를 이었고, ‘1~3회’ 29명(20.7%), ‘13회 이상’ 16명(11.4%), ‘10~12회’ 10명(7.2%), ‘기타’ 3명(2.2%)으로 나타났다.

<Table 9> Number of music classes observed by current teachers or peer student teachers

Type	n	%
1 to 5 times	57	40.7
6 to 10 times	46	32.9
11 to 15 times	27	19.3
16 times or more	8	5.7
Others	2	1.4
Total	140	100

<Table 10> Number of music class demonstrations, including research lessons

Type	n	%
1 to 3 times	29	20.7
4 to 6 times	51	36.4
7 to 9 times	31	22.1
10 to 12 times	10	7.2
13 times or more	16	11.4
Others	3	2.2
Total	140	100

4. 교육실습 지도에 대한 실태 및 인식 분석

<Table 11>은 교육실습 지도에서 실습에서 꼭 필요한 지도내용이라고 생각되는 항목과 응답자가 경험한 지도 내용에 대한 결과이다. ‘수업지도안에 대한 지도교사의 지도’는 1명을 제외한 139명(99.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실제로 ‘수업지도안에 대한 지도교사의 지도’를 경험한 수는 133명(95.0%)이었다. ‘연구수업을 포함한 음악수업시연에 대한 지도교사의 지도’는 137명(97.9%)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실습에서 경험한 수는 132명(94.3%)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지도, 상담 등 학생지도사항에 대한 지도’는 126명(9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112명(80.0%)만 지도교사의 지도를 경험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내용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학급경영 및 담임교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는 129명(92.1%)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119명(85.0%)만이 실습에서 경험하였다. ‘지도교사와의 협의회’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121명(86.4%)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실제로 경험한 수도 107명(76.4%)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거의 모든 설문 참여자들이 모든 항목의 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을 현장지도교사를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사된다. 하지만 교육실습현장에

서 수업과 관련된 지도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현장교사의 지도가 부족함이 나타났다.

<Table 11> Necessity of practicum guidance and its implementation status (N=140)

Type	Need for Practicum Guidance				Experience of Practicum Guidance			
	Necessary		Not Necessary		Experienced		Not Experienced	
	n	%	n	%	n	%	n	%
Guidance on Lesson Plans	139	99.3	1	0.7	133	95.0	7	5.0
Guidance on Music Class Demonstrations, Including Research Lessons	137	97.9	3	2.1	132	94.3	8	5.7
Guidance on Student Management, Including Counseling and Life Guidance	126	90.0	14	10.0	112	80.0	28	20.0
Guidance on Classroom Management and Homeroom Teacher Duties	129	92.1	11	7.9	119	85.0	21	15.0
Conferences with Supervising Teachers	121	86.4	19	13.6	107	76.4	33	23.6

5. 교육실습 평가에 대한 실태 분석

다음은 교육실습에서 본인에게 교사로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평가 방법에 대한 순위 결과이다. 가장 큰 영향을 1순위로 하여 서열척도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1순위로 고른 항목은 ‘연구수업을 포함한 음악수업시연에 대한 현직교사의 평가’로 82명(58.6%)이 선택하였다. 그 뒤를 이어 ‘음악수업지도안에 대한 현직교사의 평가’가 25명(17.9%)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2순위로 고른 문항은 ‘음악수업지도안에 대한 현직교사의 평가’로 70명(50.0%)이 선택하였다. 이어서 ‘연구수업을 포함한 음악수업시연에 대한 현직교사의 평가’는 30명(21.4%)으로 나타났다.

<Table 12> The assessment method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s

Type	First Choice		Second Choice	
	n	%	n	%
Evaluation of Music Class Demonstrations, Including Research Lessons, by Current Teachers	82	58.6	30	21.4
Evaluation of Music Lesson Plans by Current Teachers	25	17.9	70	50.0

<Table 12> Continued

Type	First Choice		Second Choice	
	n	%	n	%
Evaluation of Classroom Management and Task Handling Skills by Current Teachers	11	7.9	18	12.9
Evaluation of Work Attitude by Current Teachers	10	5.0	7	5.0
Others	0	0.0	0	0.0
N/A	15	10.7	15	10.7
Total	140	100	140	100

6. 교육실습과정의 개선점에 대한 인식 분석

다음은 교육실습 환경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항목은 복수 선택 응답으로 다중응답 빈도분석으로 처리되었다. 그 결과 ‘교육실습기간’이 61명(29.9%), ‘실습학교 기자재’ 40명(19.6%), ‘지도교사 1명당 배정받은 음악교육실습생의 수’ 36명(17.6%), ‘음악교육실습생의 총 수’ 35명(17.2%), ‘교육실습생 1명당 배정받은 지도교사의 수’ 22명(10.8%), ‘기타’ 10명(4.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없다’라고 7명이 응답하였고, ‘같은 교과 타 학교 실습생이 필요하다’, ‘실습지도를 맡는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교육실습기간이 4주라고 대다수가 응답한 <Table 6>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4주라는 기간 동안 학교와 지도교사에 따라 충분한 실습 기회 및 학생들과의 소통기회를 갖는데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개선의 필요에 차이를 느낀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가 함께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Table 13> Practicum environment in need of improvement

Type	n	%
Practicum Duration	61	29.9
Total Number of Music Education Practicum Students	35	17.2
Number of Music Education Practicum Students Assigned per Supervising Teacher	36	17.6
Equipment and Facilities at Practicum Schools	40	19.6
Number of Supervising Teachers Assigned per Practicum Student	22	10.8
Others	10	4.9
Total	204	100.0

<Table 14>는 교육실습 내용과 지도교사 지도내용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한 복수 선택 응답 결과로 다중응답 빈도분석 결과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항목은 ‘학교업무 또는 교사업무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56명(27.3%)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실습생의 연구수업 또는 수업시연 횟수’ 39명(19.0%), ‘교육실습일지 양식’ 37명(18.0%), ‘지도교사의 지도내용’ 25명(12.2%),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22명(10.7%), ‘현직교사 또는 동료교사의 음악수업 참관과정’ 18명(8.8%), ‘기타’ 8명(3.9%)으로 보여졌다. 기타 의견은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업무 또는 교사업무에 대한 교육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실습생의 연구수업 또는 수업시연의 횟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9명으로 적지 않았는데 이는 학교에 따라 수업시연의 횟수가 너무 적거나 시연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실습학기제가 실시될 경우 실습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시연의 횟수가 증가할 수 있고, 교사의 전반적인 업무와 학교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Kwon & Kwon, 2023) 학교업무와 교사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습 기간이 더 길어지는 만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실습내용과 지도사항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able 14> Practicum and supervising teacher guidance content in need of improvement

Type	n	%
Practicum Orientation	22	10.7
Content of Training on School or Teacher Duties	56	27.3
Observation of Music Classes by Current Teachers or Peer Teachers	18	8.8
Number of Research Lessons or Class Demonstrations by Practicum Students	39	19.0
Content of Guidance by Supervising Teachers	25	12.2
Format of Practicum Journals	37	18.0
Others	8	3.9
Total	205	100.0

7. 교육실습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분석

교육실습이 중등예비음악교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문항들에 관한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문항은 학생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직에 대한 이해도 향상, 수업 설계 및 구현 도움, 학급경영 도움, 예비교사로서 자신의 장단점 파악 도움 여부로 구성되어있다.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결과는 교육실습이 수업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문항에 관한 결과로 매우 그렇다를 5점 만점으로 하였을 때 평균(M)은

4.46, 표준편차(SD)는 .62이다. 다음으로는 학생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문항의 결과가 평균(M)은 4.44, 표준편차(SD)는 .62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교육실습이 학생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로서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문항은 평균(M)은 4.43, 표준편차(SD)는 .63으로 평균적으로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로서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직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평균(M)은 4.41, 표준편차(SD)는 .68로 평균적으로 교직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 문항은 교육실습이 학급을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문항으로 평균(M)은 4.19, 표준편차(SD)는 .76으로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응답 결과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5> Assessment of practicum effectiveness for future secondary music educators

Type	M	SD
Improvement in Understanding of Students	4.44	.62
Improvement in Understanding of the Teaching Profession	4.41	.68
Assistance in Less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4.46	.62
Assistance in Classroom Management	4.19	.76
Help in Identifying Strengths and Weaknesses as a Prospective Teacher	4.43	.63

교육실습을 하기 전 교직에 대한 관심 유무와 실습 후 교직진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 관한 결과는 다음 <Table 16>과 같다. 교육실습 전 교직에 관심이 있었던 실습생은 122명(87.1%)이었고, 교직에 관심이 없던 실습생은 18명(12.9%)이었다. 실습 후 교직에 대한 진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수는 126명(90.0%), 교직에 대한 진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수는 14명(10.0%)으로 나타났다.

실습 전에 교직에 관심이 있었다고 응답한 122명 중 실습 후에도 교직에 대한 진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수는 109명(89.3%)으로 나타났고, 실습 후 교직 진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응답 수는 13명(10.7%)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 전 교직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18명 중 실습 후 교직 진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변화한 사람은 17명(94.4%)으로 나타났으며, 실습 후 교직 진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수는 1명(5.6%)이었다. 교육실습을 통해 인식이 바뀐 인원은 140명 중 총 30명으로 전체 인원 에 비하여 적은 수이지만 교육실습의 어떤 부분이 교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추후 연구될 필요가 있다.

<Table 16> Perceived changes in secondary music teachers before and after practicum

	Type	n	%
Before the Practicum	Interested in the Teaching Profession	122	87.1
	Not Interested in the Teaching Profession	18	12.9
After the Practicum	Positive Perception of a Career in Teaching	126	90.0
	Negative Perception of a Career in Teaching	14	10.0
Total		140	100
Respondents Interested in Teaching Profession Pre-Practicum with Positive Perception Post-Practicum		109	89.3
Respondents Interested in Teaching Profession Pre-Practicum with Negative Perception Post-Practicum		13	10.7
Respondents Not Interested in Teaching Profession Pre-Practicum with Positive Perception Post-Practicum		17	94.4
Respondents Not Interested in Teaching Profession Pre-Practicum with Negative Perception Post-Practicum		1	5.6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 소재의 중등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습과정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2023년도에 교육실습을 경험한 전국 사범대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40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교육실습이 시작되기 전,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담당 학급과 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았다고 응답한 실습생 수는 적은 편이었으며, 개선점에서 학교 업무와 교사 업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실습생이 실습학급과 학교에 대한 사전지식은 스스로 습득해야 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Kang, 2010)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이 실습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실습목표달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는 만큼 실습학교에서 교육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실습기간으로 ‘4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4주간의 현행 실습기간에 대해 불만족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대다수가 4주간의 실습기간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실습기간이 짧아서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타과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Heo, 2007; Kang, Shin & Seol, 2022)와 음악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 Park, 2023)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김영미, 박영주(Kim & Park, 2023)의 선행연구에서 음악교육실습생은 4주간의 실습기간이 짧다고 인식하지만 희망하는 실습기간은 실습학기제의 기간(15주~17주)보다 훨씬 짧은 7주~8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습기간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뤄진 후에 실습학기제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수업 참관 횟수가 높을수록 실습생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음악수업 시연 횟수는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타 전공 교육실습 선행연구에서 수업 시연 횟수가 적어 만족도가 낮았던 것(Ahn, 2001; Heo, 2007)과 수업시연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업역량이 향상되었다(Jung & Jung, 2012)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업시연 횟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음악수업 시연 횟수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수업 및 음악수업 시연 횟수에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많았다. 따라서 수업 시연 횟수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주는 다른 배경과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실습이 PCK(교수내용지식)를 개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oo, 2014)와 음악교사의 전문성으로 실천적 지식과 반성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선행연구(Seok, 2016)가 있다. 하지만 교육실습이 이뤄지는 현실에서는 수업을 참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꺼리는 교사가 많으며(Choi, Park & Seol, 2020; Heo, 2007), 수업 진도상 문제로 수업시연을 할 때 제한이 많은 환경(Cho, 2019), 지도교사의 과다한 업무로 실습생의 지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Choi, Park & Seol, 2020) 교육실습생이 수업과 관련하여 많은 지식을 쌓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실습학교와 지도교사는 실습생이 음악수업을 참관하고 시연하는 과정에서 음악교사로서 필요한 지식을 현장에서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과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실습기간이 종료된 직후에 설문이 수집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3년 교육실습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약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집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응답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실습기간이 종료된 직후의 후속 연구로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23년에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실습을 경험한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균형 있는 실습학교 유형과 특성을 표집하지 못하였다. 학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실습학교의 환경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균형 있는 실습학교 유형과 특성으로 표집하여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실습기간과 예비음악교사의 음악수업 참관 및 시연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실습

기간과 음악수업 참관 및 시연 횟수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이 양쪽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차이로 보이므로 질적연구가 함께 이뤄진다면 음악교육 실습의 실태와 인식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만족도와 양적인 측면에 맞추어 진행되어 예비교사에게 영향을 주는 내적 요인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실습 전, 후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내적 측면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J. H. (2001).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of teach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Sports Education Society*, 8(2), 277-290.
- Cho, N. Y. (2019). A study on the teaching practice environment for secondary preservice music teachers. Master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Choi, H. J., Park, I. S., & Seol, Y. H. (2020). Exploring ways to improve teaching practice through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s of teaching practice guidance teachers. *Teaching Practice Research*, 2(1), 22-36.
- Eom, M. R., & Eom, J. Y. (2009).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competencies of preservice teachers before and after teaching practice. *Korea Teacher Education Research*, 26(3), 491-508.
- Heo, C. S. (2007). Teaching practice as a site for reconstructing educational knowledge: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five teaching practice students. *Curriculum Studies*, 25(1), 95-127.
- Jang, K. B. (2007). Thoughts on music teacher education and evaluation. *Music Education and Technology*, 6, 27-38.
- Joo, H. S. (2014). A study on differences in PCK among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s based on teaching practice and mock teaching experiences.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14(2), 91-106.
- Joo, N. H. (2011). A study on lesson experiences of secondary music teaching trainees through the analysis of teaching practice journals.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Jung, J. E. (2012). Comparative study of teaching practice systems in preservice music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in Korea and the U.S. *Music Education and Technology*,

14, 19-40.

- Jung, J. H. (2017). The impact of teaching practice experience on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s' PCK and music education beliefs.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Jung, M. J., & Jung, J. Y. (2012). Analysis of the impact of teaching practice on the competency changes of preservice teachers. *Korea Teacher Education Research*, 29(4), 63-83.
- Jung, Y. G. (2004). *Theory and practice of teaching practice*. Seoul: Moonumsa.
- Kang, H. I., Shin, S. B., & Seol, Y. H. (2022).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preservice teachers with teaching practice. *Edu-tainment*, 4(1), 39-55.
- Kang, H. K.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teaching practice orientation on the achievement of practice goal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between practice-related variables. *Korea Social Welfare Education*, 11, 55-76.
- Kang, H. S. (2013).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teaching practice education in the Korean teacher training process. *Korea Teacher Research*, 30(3), 47-74.
- Kim, B. C. (2005). What do preservice teachers experience during teaching practice?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23, 49-76.
- Kim, D. G., & Lee, J. H. (2008).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Singapore's teacher training system.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21(3), 313-337.
- Kim, H. S., & Lee, N. (2008). *Theory and practice of school field practice*. Seoul: Taeyoung Publishing.
- Kim, J. D. (2016). *Core aspects of recent teaching practice*. Paju: Korean Scholarly Information.
- Kim, Y. M. (2012). A survey study for effective musical activities in secondary music education: Based on teaching practice reports. *Music Education and Technology*, 15, 35-56.
- Kim, Y. M., & Park, Y. J. (2023). A study on preservice music teachers' perceptions in preparation for the teaching practice semester system. *Music Education Research*, 52(2), 23-40.
- Ko, Y. J. (2021). The effect of teaching practice experience on th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preservice music teachers: Focusing on remote teaching practice situation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Kwon, J. S. (2009). *Understanding teaching practice*. Seoul: Hakidan.
- Kwon, N. Y., & Kwon, M. J. (2023).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secondary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in the operation of the school field practice semester system.

- Educational Culture Studies*, 29(2), 31-53.
- Lee, K. Y. (2013).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alignment and balance in science teacher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Research*, 27(1), 23-29.
- Lee, M. A. (2019). Action research on reflective thinking and practice of elementary music teacher learning community members.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e, S. Y., & Je, M. S. (1998). A survey on th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ith practical education - Focusing on maternal and child care practical education. *Thesis Collection*, 6, 211-230.
- Lim, J. Y. (2023). The effect of teaching practice experience on the music teaching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secondary preservice music teachers. Master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McIntyre, D. J. (1983). *Field experiences in teacher education: From student to teacher*. Washington, D.C.: Foundation for Excellence in Teacher Education and the ERIC Clearinghouse on Teacher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21). *Development plan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 training systems*. Sejong: Author.
- _____ (2023). *2023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practical manual*. Sejong: Author.
- Na, S. I., Lee, M. H., Park, M. H., Han, H. J., Kim, I., Lim, H. K., & Hwang, Y. D. (2012). *A guide for preservice teachers on teaching practice*. Seoul: Educational Science Press.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f Music (2022). NASM handbook 2022-23.
- Park, E. S. (2000). The current state of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teaching practice and factors influencing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Society*, 12(3), 129-143.
- Park, S. H. (2018). The impact of teaching practice experience on the qualities of preservice secondary music teachers as music educators.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Seo, K. H. (2005). Reflection and practice: A discourse on developing teacher professionalism. *Curriculum Studies*, 23(2), 285-310.
- Seok, M. J. (2016). Exploring music teacher standards for enhancing teacher professionalism. *Future Music Education Research*, 1(2), 23-37.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3). *Guidelines for creating conditions for*

operating the school field practice semester system. Seoul: Author.

- Shin, H. K. (2015). Changes in music teacher efficacy through teaching practice among secondary preservice teachers.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15(12), 111-135.
- Shin, J. H. (2016). A study on the impact of secondary teacher training programs on the teaching competence of preservice music teachers. *Music Education Research*, 45(2), 169-186.
- SREB (n.d.). Student teaching requirements in SREB states. Retrived October 3, 2023, from http://www.sreb.org/sites/main/files/file-attachments/student_teaching_requirements_in_sreb_states.pdf
- Stites, M. L., Rakes, C. R., Noggle, A. K., & Shah, S. (2018). Preservice teacher perceptions of preparedness to teach in inclusive settings as an indicator of teacher preparation program effectiveness. *Discourse and Communication for Sustainable Education*, 9(2), 21-39.
- Yoon, E. K. (2018). Differences in music teaching anxiety and music teaching efficacy of secondary preservice music teachers based on teaching practice experience.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